

30여 학회장, 김영환장관 초청 간담회

- 한림대 송상용학장 “과학의 대중화...” 주제발표 -



김영환 과학기술부장관이 6월 5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중강당에서 열린 대한금속·재료학회 등 30여 학회장과와의 간담회에서 학회가 전문적인 학술활동 뿐 아니라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난 6월 5일 과충은 김영환 과학기술부장관을 초청하여 대한수학회 외 30여 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오후 5시부터 열린 이

간담회에서 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과충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

도록 합심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최근 ‘젊은 과학도들이 과학을 기피하는 현상’과 ‘과학기술자들이 우대받지 못한 것’은 과학자들 스스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인 스스로가 사회현상, 정치, 정부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 자기 몫을 찾아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이언스 북 스타트운동’(관련기사: 과학과 기술 6월호 91쪽)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추진배경도 설명했다. 이어서 송상용 한림대 인문대학장의 ‘과학의 대중화와 학회의 몫’이라는 주제강연(내용개제 이번호 78쪽)이 있었고 참석학회장들은 ① 학회 학술활동 지원금 확대 ② 세계적 영문 학술지 집중 육성 지원 ③ 과학대중화 지원 등을 장관께 요청했다.

과충, 러시아 첨단기술이전 워크숍

‘2001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 공동협의회 총회’ 도 개최

과충은 재CIS과협(회장 최알렉세이 다닐로비치) 주관 하에 지난 6월 22일~25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회의실에서 러시아 첨단기술 이전을 위한 ‘2001 국내외 한국과학기술자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재CIS과협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가진 이 워크숍은 정보통신/에너지 및 환경/생명공학 및 유전공학/일반 4개 분과로 나누어 매 분과별 하루씩 4일간 발표됐으며 발표 후 3일간은 러시아 현지 회사 및 연구소를 방문하여 기술협력회의 등 특별프로그램도 가졌다. 아울러 23~24일에는 ‘2001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 공동협의회 총회’도 열려 과협별 활동보고와 공동선언문 채택 및 종합토론이 있었다.

일과 6월 8일 과충 이결삼 사무총장을 방문하고 ‘2001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 공동협의회 총회’와 각 과협 올해 사업계획 등에 관해 협의했다.

과학기술자문봉사단 기술지도 활발

과학기술자문봉사단(단장 김상주)에서는 중소기업애로기술 지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부 및 센터를 통하여 광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남테크노파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 중소기업지원센터, 송도테크노파크 등 지역사회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 추진한 결과 2001년 상반기중 총 1백 67회의 기술지도를 실시하였다(대전·충청지부 7회, 광주·호남지부 25회, 대구·경북지부 28회, 부산·경남지부 2회, 경인센터 86회).

이는 2000년 상반기보다 56% 증가한 기술지도 실적이며 또한 홈페이지(www.kstc.or.kr)에는 명사특강을 신설하여 전 국민 과학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④

재미·재독과협 회장 과충 방문

재미과협 정호희장과 재독과협 김재금회장이 각각 5월 29